

기혼자녀를 둔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자녀지지의 조절효과

정 문 주[†]

한양대학교

홍 영 희

한국 가톨릭 상담심리학회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자녀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 35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30부를 회수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2부와 기혼자녀 1인 이상을 둔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녀 중 미혼 자녀만을 둔 중년기 전업주부의 설문지 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323부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배우자지지는 가족 관계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자녀지지는 역할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변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전업주부, 생활사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배우자지지, 자녀지지

[†] 교신저자 : 정문주,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 010-2364-9021 / E-mail : sasayayou@naver.com

생애 발달적 측면에 있어서 중년기는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단계로서 자신의 삶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며 좌절 시 침체를 경험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그리고 이러한 중년기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놓이게 되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생리적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을 포함 눈에 띄는 육체의 노화로 인한 변화, 심리적으로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상실감과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망감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변화 등 가족기능과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 변화를 경험한다(이서영, 2016; 신혜섭, 2006; 김순옥, 김현숙, 2016; Henderson, Guthrie, & Dennerstein, 2003). 그 중 기혼여성의 중년기란 ‘위기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이승숙, 정문주, 2018). 그리고 이러한 중년여성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Beiser와 Hou(2006)는 기혼여성은 기혼남성에 비하여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염려’, ‘배우자와 노부모에 대한 걱정’,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의 자아실현’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년기의 기혼여성들 중 전업주부의 경우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정서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지지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주관적인 안녕감과 삶의 만족감의 감소가 급격하다고 보고되었다(김은하, 김혜림, 2015). 나아가 Ro 와 Park(2008)은 중년여성 중 전업주부들은 특히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년기에 경험

하는 관계 변화는 자살사고와 상관이 높은 삶의 무망감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중년기 여성 중에서 기혼여성 그리고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구분하여 삶의 위기와 경험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여봉, 2012). 이러한 경향성의 배경에는 중년기에 접어든 기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삶의 수준, 일상의 스트레스 경험과 위기감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적 삶의 질, 삶의 만족감, 안녕감등이 다르다는 것이다(조금숙, 조증열, 2004; 정영숙, 최효선, 성지훈, 2008). 전경숙과 정태연(2012)역시 한국사회에서 전업주부로서 생활해 온 기혼여성들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취업주부 여성에 비해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다’, ‘나는 여태 무엇을 하고 살아 왔는가’와 같은 상실과 한계를 크게 인식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비판적인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취업주부 여성의 경우는 ‘일터’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고 ‘자신이 이루어낸 역할과 직위’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것에 주관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가정 내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생산적 가치를 저평가하며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진이(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의 전업주부의 경우 한국사회에서는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 ‘노부모 시중’ 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의 독립 혹은 노부모의 죽음 이후에 오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변화는 대처가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를 누적시킨다. 나아가 ‘자신의 삶’이 존재 하지 않았다는 현실적 자각과 맞물려 자신의 삶이 아닌 ‘자신’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중년여성에게 누적된다는 것은 신경쇠약과 우울, 신경질환과 같은 심리학 적 장애와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소화성 궤양 등의 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Maunsell, Brisson, Mondor, Verreault, Deschênes, 2001). 더불어 왕인순(2010)에 의하면 중년여성에게 일상스트레스의 누적은 행동 적 측면에서 불면, 음주 및 흡연량의 증가, 약물 남용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중년기 전업주부가 경험하는 관계 변화, 가족 내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을 유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편감과 부 적응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 성과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서은희, 최지연, 정영숙, 2018). 그러나 한편으론 모든 중년기 전업주부 여성들이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다 감소하지는 않는다.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 대처 적응이론(Stress-Coping Adatation Theory)에 의하면 각 개인은 자신의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역동적, 상호 교류 적, 양방적 관계로 인지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있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보려고 노력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스트레스라고 평가하고 좌절감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정순돌, 김정원, 2010).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제시된 중년기 전업주부 여성들 역시 각 개인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도 각기 다를 것이다(이강진, 김영희, 2018; 오명자, 김병욱, 김미례, 2008). 그리고 생활 속에 누적되고 대처 불가능했던 스트레스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의 만족 역시 그 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삶의 만족은 Bernice(1961)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Well-being)감으로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의 지각이다. 정순돌과 김정원(2010)에 의하면 삶의 만족은 과거에는 객관적 지표로서 육체적인 건강과 경제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Diener, Emmons, Larsen.& Griffin, 1985). 그러나 최근에는 주관적 지표인 정신적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종교 및 영성 등 중심으로 바뀌면서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가 더 중시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삶과 세상에 의미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김정호(2007)는 삶의 만족이 낮다는 것 혹은 삶의 만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조하와 신희천(2009)역시 삶의 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삶의 만족이 감소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상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김은아, 최윤정, 이미경,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중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차영란 외, 2007; 김경옥, 2018). 이에 중년 여성들 중 특히 생활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지지자원의 취약성을 보고하고 있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강희숙, 이춘희, 2017).

중년기 전업주부의 경우 일상생활사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지자원 중 가족지지가 다른 어떤 지지자원보다 더 유의하게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지지는 중년기 전업주부에게 사랑과 신뢰, 인정 칭찬 등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설명된다(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또한 가족 지지는 중년여성의 부정정서를 감소시켜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밝혀졌고(하춘광 석희정, 2015; Feldman & Snyder, 2005), 인간이 최적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지지 자원이라고 정의되고 있다(Brody, 1981).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도 가족만큼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없으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지지가 되는 것이다(Tak & McCubbin, 2002).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탐색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포함 가족과 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발견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하여 김세영과 정태연(2013)은 가족지지 중에서도 자녀의 독립 이후에 건강하게 관계를 구축한 배우자의 지지가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혜숙(2013)은 질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는 실제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와 실제 배우자가 지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동양권에 있어서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가족중심, 혹은 자녀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배우자 중심의 가족문화가 생성되고 있다(김현동, 이상우, 2017). 이에 배우자를 지지한다는 것, 지지받는다는 것은 '정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지지중 배우자 지지가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정희(1992), 최명숙과 한금선(2008)에 의하면 가족지지에 있어서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만큼 유의미한 지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 중년여성들은 자녀를 양육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김수정(2015)에 의하면 양육대상으로서 자녀들이 제공하는 지지는 실제 '지지'가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업주부인 중년여성에게 있어서는 심리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 곧 자신의 삶도 '성공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며 심리적 지지자원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승숙과 정문주(2018)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한 성인 자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전적인 동료로서 성장한 모습만으로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무언가 지지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지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자녀는 여전히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양육'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을 경험하고 나아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한 '기혼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생의 동반자인 성인으로 고려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혼자녀의 경우는 그 이전에는 제공받지 못했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단순히 자녀의 독립으로 제공받는 '금전적 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윤석, 2011). 하지만 강희숙, 이춘희(2017)은 중년 여성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질, 건강증진, 지지요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의 문헌고찰을 실시하면서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조절 변인으로서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녀 중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의 경우 지지와 양육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지는 틀이라는 한계에서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가족, 경제, 역할 등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조절하는 변인이 배우자와 자녀 중 어떠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각 요인별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김수정, 유성경,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가 어떻게 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킴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안정감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는 이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2.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을 감소시킬 때 자녀지지는 이를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full-time 취업주부가 아닌 여성으로서 40-60대 중년여성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33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2부와 미혼 자녀만을 둔 중년여성의 설문지 5부를 총 7부를 제외하고 32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

면 전체 323명 모두 중년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45세에서 최대 60세까지였다. 학력으로는 고졸부터 대학원 이상까지 나타났으며, 대졸자는 전체 324명중 135명(41.7%), 고졸은 103명(31.8%)이었다. 결혼형태로는 연애결혼이 197명으로 전체의 60.8%였다. 자녀가 모두 기혼인 경우는 92명(28.4%), 자녀수는 2명이 전

체의 70.2%를 차지하였다. 기혼, 미혼 자녀를 함께 둔 경우는 231명(71.5%)이었다. 표 1을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도구

생활사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중년여성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의 결과보다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진이(200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Holmes와 Rahe(1967)의 사회 재적응 평가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최근 생활 경험표’를 바탕으로 이평숙(1984)이 한국인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총 20개 문항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도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 관계 문제 5개 문항, 경제 문제 5개 문항, 건강문제 5개 문항과 역할문제 5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년간 각 요인에 따라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이 들었는지’에 대한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사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 (1985)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

표 1. 인구 통계학적 정보(N=323)

측정변수	범주	빈도 (명)	비율 (%)
연령	45~50	80	24.7
	51~60	243	75.2
	전체	323	100
최종학력	고졸	103	31.8
	초대졸	49	15.1
	대졸	135	41.7
결혼형태	대학원이상	36	11.1
	전체	323	100
	연애결혼	197	60.9
	중매결혼	62	19.1
자녀수	절충혼 (연애반, 중매반)	60	18.8
	기타	4	1.2
	전체	323	100
	1명	50	15.4
기혼자녀	2명	224	70.2
	3명이상	49	15.1
	전체	323	100
	기혼자녀와 미혼자녀	231	71.5
기혼자녀	기혼자녀	92	28.4
	전체	323	100

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의 삶 처럼 살겠다.’ 등 5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 .89이었다.

배우자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하여 부부끼리의 정서적 친밀감을 인지할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와 인지적 평가, 즉 인정과 같은 평가적 지지, 물질적지지 등의 전반적인 것으로 정의한다(김순옥, 김현숙, 2016; 감시연, 서영석, 2010).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의 척도를 기초로 이인숙(2002)의 가족지지 하위 요인으로서 '배우자지지' 요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의 예로는 '내 배우자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정보적 지지로는 '내 배우자는 내게 생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평가적 지지로는 '내 배우자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한다.' 물질적 지지로는 '내 배우자는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 = .96으로 나타났다.

자녀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미령(2012)에 의해 연구된 성인 자녀의 지지와 동등한 의미로서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자녀지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지와 정서적인 친밀감의 표현, 일상생활에서의 도움과 자녀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영희(1983)가 작성한 도구를 기반으로 강현숙과 한상숙(2000)이 사용한 가족 지지 척도(Family Support Scale: FSS)를 수정하여 사용한 11문항의 자녀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녀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자녀들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등 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 = .88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빈도분석, 주요변인간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요인별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의 각 조절효과를 알아보기로 각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예측변

인이 연속 변인이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 평균 중심화(centering)를 실시하였다(Aiken, West, 1991). 평균 중심화(centering)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을 입력하여 주 효과를 알아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지지와 배우자 지지를 각 투입한 후 세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상호작용이 고유의 설명량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회귀방정식을 구한 후 ± 1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과 조절변인으로서 자녀지지와 배우자지지 종속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관계 스트레스 ($r=-.426, p<.01$), 경제문제 스트레스는 ($r=-.337, p<.01$), 역할문제 스트레스는 ($r=-.229, p<.01$), 건강문제 스트레스는 ($r=-.142, p<.01$)의 순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전체 생활스트레스와 ($r=-.349, p<.01$) 배우자지지 역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녀지지와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N=323)

	1	2	3	4	5	6	7	8
1	1							
2	.544**	1						
3	.464**	.476**	1					
4	.641**	.527**	.590**	1				
5	.809**	.801**	.784**	.843**	1			
6	-.426**	-.337**	-.142*	-.229**	-.349**	1		
7	-.298**	-.210**	-0.09	-.211**	-.246**	.385**	1	
8	-.423**	-.477**	-.222**	-.370**	-.463**	.492**	.467**	1
M	10.55	10.15	12.04	11.22	43.96	56.14	41.81	21.77
SD	3.30	3.84	3.59	3.30	11.34	12.26	6.40	6.98
왜도	.37	.50	.03	-.05	-.03	-.79	-.08	-.14
첨도	.29	-.38	-.37	-.43	-.27	.85	.06	-.62

$p<.05$, $p<.01$

1. 가족관계스트레스. 2. 경제문제 스트레스. 3. 건강문제 스트레스. 4. 역할문제 스트레스. 5. 생활사건 스트레스. 6 배우자지지 전체. 7. 자녀지지 전체. 8. 삶의 만족도.

하위 요인의 경우 가족관계스트레스는 ($r = -.298, p < .01$), 역할문제스트레스는 ($r = -.211, p < .01$), 경제문제스트레스와는($r = -.210, p < .01$), 의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r = -.246(p < .01)$) 역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위 요인 분석결과 건강문제와 자녀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인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r = -.423(p < .01)$), 경제문제스트레스와 삶의 만족($r = -.477(p < .01)$), 건강문제스트레스($r = -.222(p < .01)$), 역할문제스트레스($r = -.370, p < .01$), 마지막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 전체와 삶의 만족도 ($r = -.463, p < .01$) 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삶의 만족의 경우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경제문제 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역할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문제 스트레스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지지는 삶의 만족도와($r = .492, p < .01$), 자녀 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r = .467(p < .01)$ 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절효과 분석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 각 인구통계학적 변인

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직업을 독립 변인에 투입하여 통제하고, 2단계 평균 중심화(centering)된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으로서 가족관계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건강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와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에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2단계 투입된 각각의 하위요인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를 각각 독립 변인에 투입, 4단계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 변인과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인 가족관계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제외한 각 하위요인(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역할문제 스트레스)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not sig.).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1단계 인구통계학적인 연령, 학력, 직업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가족관계 생활스트레스를 투입한 경우 삶의 만족에 $\beta = -.42(p < .01)$ 로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2단계 투입한 변인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23%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인구통계학적인 통제변인과 가족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배우자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배우자지지는 삶의 만족에 $\beta = .37(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2단계 설명량 23%에서 10% 변량을 추가 33%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4단계에는 $\beta = -.09(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34%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방식대로 가족관계스트레스와 배우자지지의 각각 평균보다 ± 1 표준편차위아래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을 구하여 그림 1을 작성하였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위

해 두 개의 단순 회귀선 기술기의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Aiken & West, 1991), 배우자지지가 낮은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t = -.866, p = .391$), 배우자지지가 높은 경우 ($t = -4.697, p < .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가족관계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N=323)

준거변수	위계	예측변수	B	β	t	p	Δ	F
삶의 만족	1	(상수)	-1.95		-3.66	0.00	0.06(.05)	6.32
		연령	0.02	0.15	2.56	0.01		
		학력	0.20	0.22	3.83	0.00		
		직업	0.02	0.03	0.53	0.59		
	2	(상수)	-1.80		-3.74	0.00	0.23(.22)	24.15
		연령	0.02	0.14	2.65	0.01		
		학력	0.21	0.22	4.36	0.00		
		직업	0.00	0.00	0.00	1.00		
			가족관계스트레스(A)	-0.42	-0.42	-8.56	0.00	
	3	(상수)	-1.75		-3.89	0.00	0.33(.32)	31.67
		연령	0.02	0.15	3.07	0.00		
		학력	0.13	0.13	2.73	0.01		
직업		0.02	0.04	0.85	0.40			
		가족관계스트레스(A)	-0.26	-0.26	-5.07	0.00		
		배우자지지(B)	0.37	0.37	6.90	0.00		
4	(상수)	-1.83		-4.08	0.00	0.34(.33)	27.62	
	연령	0.02	0.15	3.15	0.00			
	학력	0.13	0.14	2.90	0.00			
	직업	0.02	0.04	0.82	0.41			
		가족관계스트레스(A)	-0.27	-0.27	-5.22	0.00		
		배우자지지(B)	0.37	0.37	7.06	0.00		
		AXB상호작용	-0.09	-0.11	-2.30	0.02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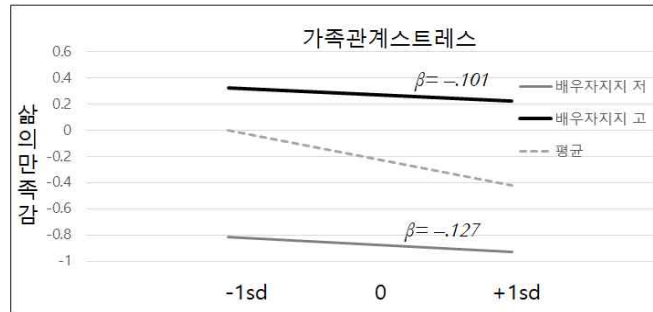


그림 1.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감에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

두 번째로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를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각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직업을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통제하고, 2단계 평균 중심화(centering)된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인 가족관계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건강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와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에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2단계 투입된 각각의 하위요인(가족, 역할, 건강, 경제)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지지를 각각 독립변인에 투입, 4단계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 변인(가족, 역할, 건강, 경제)과 자녀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스트레스, 역할 관련스트레스와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녀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생활사

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스트레스와 건강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녀지지는 조절변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경제문제 스트레스의 경우 1단계 인구통계학적인 연령, 학력, 직업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공변인을 통제하고 경제문제 스트레스를 투입한 경우 삶의 만족에 $\beta = .46(p < .01)$ 로 부정적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2단계 투입한 경제문제 스트레스는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27%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통제변인과 공변인을 투입 후 통제된 후, 자녀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자녀지지는 삶의 만족에 $\beta = .37(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2단계 설명량 27%에서 13% 변량에 따른 증가를 통하여 40%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변인을 통제한 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4단계에는 $\beta = -.12(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41%를 나타냈다.

두 번째,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중 역할관련 스트레스 역시 1단계 인구통계학적인 연령, 학력, 직업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공변인을 통제하고 역할 스트레스를 투입한 경우 삶의 만족에 $\beta = -.41(p < .01)$ 로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2단계 투입한 경제문제 스트레스는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통제변인과 공변인을 투입 후 통제된 후, 자녀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자녀지지는 삶의 만족에 $\beta = .38(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2단계 설명량 22%에서 13% 변량에 따른 증가를 통하여 35%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변인을 통제한 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4단계에는 $\beta = -.11(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36%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전체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있어 자녀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1단계 인구통계학적인 연령, 학력, 직업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공변인을 통제하고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투입한 경우 삶의 만족에 $\beta = -.47(p < .01)$ 로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2단계 투입한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는 통제변인과 공변인을 투입 후 통제된 후, 자녀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자녀지지는 삶의 만족에 $\beta = .36(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2단계 설명량

27%에서 13% 변량에 따른 증가를 통하여 39%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변인을 통제한 후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4단계에는 $\beta = -.10(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은 40%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대로 생활사건 스트레스 전체와 조절변인과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하위변인인 경제문제 스트레스와 역할관련 스트레스, 자녀지지의 각각의 변인을 평균보다 ± 1 표준편차위아래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집단의 삶의 만족도 점수 평균을 구하여 그림 2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예측변인과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의 사후검증을 위해 두 개의 단순 회귀선 기술기의 유의도 검증을 한 결과(Aiken & West, 1991)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할관계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자녀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t = -2.142, p < .05$), 자녀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t = -6.297, 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경제문제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자녀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t = -.273, p = .7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지지가 높은 경우 ($t = -5.273, 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지지가 낮은 집단

표 4.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 (N=323)

준거변수	위계	예측변수	B	β	t	p	Δ	F
삶의 만족	1	(상수)	-1.95		-3.66	0.00	0.06(.05)	6.32
		연령	0.02	0.15	2.56	0.01		
		학력	0.20	0.22	3.83	0.00		
		직업	0.02	0.03	0.53	0.59		

표 4.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 (N=323) (계속 1)

준거변수	위계	예측변수	B	β	t	p	Δ	F
삶의 만족	2	(상수)	-1.54		-3.26	0.00	0.27(.26)	28.79
		연령	0.02	0.14	2.70	0.01		
		학력	0.17	0.18	3.62	0.00		
		직업	-0.02	-0.04	-0.82	0.41		
		경제문제스트레스(A)	-0.46	-0.46	-9.53	0.00		
	3	(상수)	-1.51		-3.51	0.00	0.40(.39)	41.91
		연령	0.02	0.14	3.00	0.00		
		학력	0.14	0.15	3.23	0.00		
		직업	-0.01	-0.02	-0.49	0.63		
		경제문제스트레스(A)	-0.39	-0.39	-8.53	0.00		
	자녀지지(B)	0.37	0.37	8.34	0.00			
	4	(상수)	-1.55		-3.65	0.00	0.41(.40)	36.87
		연령	0.02	0.14	2.98	0.00		
		학력	0.14	0.15	3.37	0.00		
		직업	-0.01	-0.02	-0.35	0.73		
경제문제스트레스(A)		-0.38	-0.38	-8.44	0.00			
자녀지지(B)	0.37	0.37	8.34	0.00				
AXB상호작용		-0.11	-0.12	-2.73	0.01			
삶의 만족	1	(상수)	-1.95		-3.66	0.00	0.06(.05)	6.32
		연령	0.02	0.15	2.56	0.01		
		학력	0.20	0.22	3.83	0.00		
		직업	0.02	0.03	0.53	0.59		
	2	(상수)	-1.96		-4.04	0.00	0.22(.21)	21.95
		연령	0.02	0.15	2.86	0.00		
		학력	0.27	0.28	5.46	0.00		
		직업	-0.02	-0.04	-0.81	0.42		
	역할문제스트레스(A)	-0.41	-0.41	-8.06	0.00			
	3	(상수)	-1.85		-4.18	0.00	0.35(.34)	34.23
		연령	0.02	0.15	3.11	0.00		
		학력	0.22	0.23	4.76	0.00		
		직업	-0.01	-0.02	-0.40	0.69		
		역할문제스트레스(A)	-0.32	-0.32	-6.66	0.00		
	자녀지지(B)	0.38	0.38	8.10	0.00			

표 4.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자녀 지지의 조절효과 ($N=323$) (계속 2)

준거변수	위계	예측변수	B	β	t	p	Δ	F	
삶의 만족	4	(상수)	-1.90		-4.31	0.00	0.36(.35)	29.81	
		연령	0.02	0.15	3.17	0.00			
		학력	0.22	0.23	4.84	0.00			
		직업	-0.01	-0.02	-0.41	0.68			
		역할문제스트레스(A)	-0.30	-0.30	-6.14	0.00			
		자녀지지(B)	0.38	0.38	8.06	0.00			
		AXB상호작용	-0.11	-0.11	-2.32	0.02			
삶의 만족	1	(상수)	-1.95		-3.66	0.00	0.06(.05)	6.32	
		연령	0.02	0.15	2.56	0.01			
		학력	0.20	0.22	3.83	0.00			
		직업	0.02	0.03	0.53	0.59			
	2	(상수)	-1.86		-3.98	0.00	0.27(.26)	30.04	
		연령	0.02	0.15	3.04	0.00			
		학력	0.22	0.24	4.75	0.00			
		직업	-0.02	-0.04	-0.72	0.47			
			생활사건스트레스(A)	-0.47	-0.47	-9.78	0.00		
	3	(상수)	-1.78		-4.15	0.00	0.39(.38)	40.87	
		연령	0.02	0.15	3.28	0.00			
		학력	0.18	0.19	4.24	0.00			
		직업	-0.01	-0.02	-0.36	0.72			
		생활사건스트레스(A)	-0.38	-0.38	-8.30	0.00			
		자녀지지(B)	0.36	0.36	7.84	0.00			
	4	(상수)	-1.78		-4.18	0.00	0.40(.39)	35.45	
연령		0.02	0.15	3.21	0.00				
학력		0.18	0.19	4.23	0.00				
직업		-0.01	-0.01	-0.26	0.79				
생활사건스트레스(A)		-0.36	-0.36	-7.67	0.00				
자녀지지(B)		0.35	0.35	7.72	0.00				
AXB상호작용		-0.10	-0.10	-2.34	0.02				

의 경우 ($t=-1.016, p=.314$) 자녀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t=-7.714, p<.01$)로 유의하였다.

표 4와 그림 2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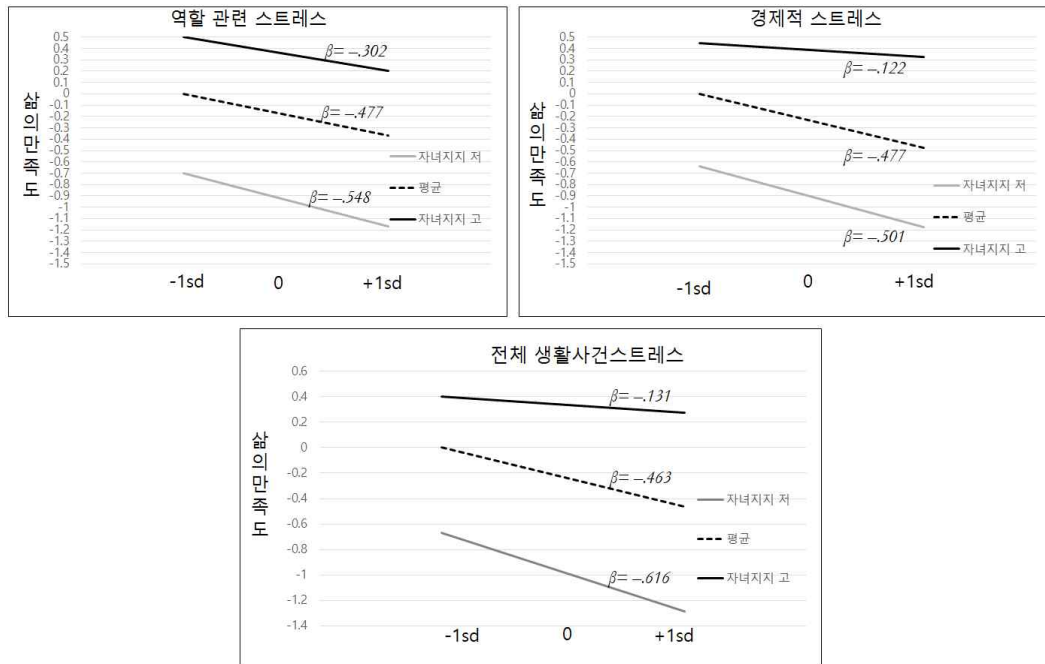


그림 2.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역할관계, 경제적스트레스와 생활사건 스트레스 전체)와 삶의 만족감의 관계에서 자녀지지(C.S)의 조절효과 검증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지지와 자녀지지가 이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스트레스와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지지는 이를 조절하여 삶의 만족감의 감소를 완충시킬 것이다. 두 번째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별 스트레스와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지지는 이를 조절하여 삶의 만족감의 감소를 완충시킬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조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분석의 유의성을 검증인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과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는 가족 관계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김필숙과 심재만(2015)의 배우자 지지가 중년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의 유의하지 않았음을 제시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장혜경, 손정남(2017)의 중년기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삶

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조절가능하다고 한 결과와는 다른 맥락을 나타냈다. 또한, 장현숙(2007)과 김미옥과 이미숙(2017)의 연구 역시 배우자 지지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고 정신건강과 신뢰, 소속감, 애착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일상스트레스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보고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이러한 상충되는 결과 혹은 일치하는 결과는 중년여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지각하고 있는 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배우자 지지는 일상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변인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유의했던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남편과의 대화 부족이나 불화’, ‘자녀와의 갈등’, ‘가족에 대한 의무감’, ‘부모나 친지, 가까운 친구의 사망’,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 쓰고 힘들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문항의 예로는 ‘큰 빚을 지게 됨’, ‘실제 수입의 감소’, ‘성생활 불만’, ‘자녀의 중요한 시험’, ‘시력 청력, 치아상태의 변화’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다른 일상 스트레스들은 배우자의 실제 지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관련, 자녀나 역할문제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배우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중년여성에게 지각하는 지지의 차원과 정도가 실제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처럼 중년여성의 생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의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면에 연구가설2의 결과는 중년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경제관련 스트레스, 역할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있어 자녀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였음을 나타냈다. 이는 자녀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일상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삶의 만족이 감소되는 정도가 자녀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삶의 만족이 감소되었을 때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역할 관련하여 중년기 전업주부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자녀지지가 높은 집단과 자녀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평균 집단에 비해 자녀지지는 삶의 만족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녀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집단에 비해 역할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해도 삶의 만족의 감소가 조절됨으로서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자녀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역할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의 감소가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그리고 서연옥(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녀지지가 중년여성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보고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황혜원, 신정이(2009)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자녀지지가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고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자녀지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가족지지의 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여전히 자녀는 지지자원의 역할보다는 ‘양육의 대상’으로서 ‘돌봄의 대상’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과한 것처럼 자녀지지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 바에 초점을 맞춰 향후 자녀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스트레스에 있어서 중년여성은 자녀지지가 높은 집단이 평균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완충 조절하여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기혼자녀를 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이인정(2009)의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성인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자원이 긍정적으로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미령(2012)의 연구에 있어서도 삶의 만족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물질적 자원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역할이 가능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자녀 중 기혼자녀를 포함한 전업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함에 있어 자녀 지지를 제공하는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었던 자녀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중년의 전업주부여성에게 전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지지는 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의 감소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자녀지지가 삶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예측변인이라는 결과

(Wrosch, Jobin, & Scheier, 2017)에서 나아가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자녀지지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 ‘자녀지지’는 가족 지지의 일종이며, ‘양육의 대상’으로서 심리적 자원의 일종으로 고려된 변인이었다면, 중년여성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 구조에 있어 자녀지지는 ‘새로운’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였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향후 양적 질적으로 중년여성에게 자녀지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근거기반을 마련한 연구였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설 2의 결과에 의해 중년여성이 일상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삶의 만족의 감소를 조절하는 변인 중 하나가 자녀 지지 자원 체계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년여성에게 있어서 성인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지는 삶의 만족을 증가시켜 가족 건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지차원에 있어서 주로 사회적 지지의 일종이라고 고려되는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지지 안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라는 특정대상을 분리하여 연구하였으며 두 요인의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기혼자녀를 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혼자녀를 포함 미혼자녀를 둔 전업주부도 연구에 포함되었다. 즉 단지 기혼자녀만을 포함한 연구대상자가 아니라, 기혼자녀를 포함하고 미혼자녀도 존재하는 연구대상

자가 존재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기혼자녀와 미혼자녀를 구분한 연구, 혹은 각각의 특성을 제시하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문적,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연구 설계 초반에 있어 가정과 육아일을 주로 했던 전업주부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일하거나 혹은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전업주부에 포함하여 제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인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거나 이에 특성 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서 자기보고식의 연구였으며 제한된 표집에 의존한 결과였다. 보다 심도 깊은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한 연구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가 중년여성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 지지를 어떻게 유용한 요인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 연구가 진행되어야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명확하게 자녀지지가 어떻게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적 자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현숙, 한상숙 (2000). 류마티스관절염과 섬유조직염환자의 증상, 일상생활, 자기효능 및 가족지지 비교 연구. 류마티스건강학회지, 7(1), 25-39.
- 강희숙, 이춘희 (2017). 중년여성의 정신 심리적 요인에 아로마 테라피가 미치는 효과-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인문사회 21, 8(1), 757-774.
- 김미령 (2012).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인자녀의 지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단일호), 1-27.
- 김미옥, 이미숙 (2017). 중년기 여성의 대인애착, 내현적 자기애 및 배우자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36(1), 57-84.
- 김세영, 정태연 (2013).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149-149.
- 김수정 (2015).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와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가족 향상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수정, 유성경 (2016).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971-1002.
- 김숙영, 전은영, 김귀분, 서연옥 (2002). 중년여성의 자아실현과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4(4), 602-611.
- 김순옥, 김현숙 (2016).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473.
-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221-235.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은하, 김혜림 (201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화병간의 관계: 내외통제성을 통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상담일반, 16(5), 33-47.
- 김은아, 최윤정, 이미경 (2018). 노인의 우울, 자살사고와 삶의 질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6(2), 179-208.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정희 (1992). 중년 여성의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정서적 경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54-68.
- 김진이 (2016). 중년 여성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적 안녕과 대처기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4, 41-75.
- 김필숙, 심재만 (2015). 배우자 지지가 한국사회 여성 삶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65-265.
- 김현동, 이상우 (2017). 맞벌이 여성근로자의 자녀부양책임감과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이 직장가 가정의 긍정적 전이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83-106.
- 신혜섭 (2006). 중년기 위기와 가족 스트레스.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1, 84-90.
- 서은희, 최지연, 정영숙 (2018).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미래 시간 조망 및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21-40.
- 이서영 (2016). 가족스트레스가 중년기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41-158.
- 이승숙, 정문주 (2017). 한국에서 '졸혼 (卒婚)'을 원하는 여성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89-711.
- 이여봉 (2012).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4, 31-70.
- 이인숙 (2002).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 지지. KJWHN(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482-493.
- 이인정 (2009). 초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359-382.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한국인구학, 34(3), 1-30.
- 이평숙. (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왕인순 (2010). 요가 자세·요가 호흡·요가 이완 프로그램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스트레스의 신체증상, 피로, 스트레스 반응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67-90.
- 장현숙 (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배우자지지와 어머니의 애착특성이 어머니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손정남 (2017). 중년기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609-621.
- 전경숙, 정태연 (2012). 한국사회 중년기 전업주부의 삶의 재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문

- 화 및 사회문제, 19(1), 19-44.
- 정영숙, 최효선, 성지훈 (2008). 원격대학 전업/취업 주부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교육적 특성. *평생교육학연구*, 14, 103-132.
- 조금숙, 조증열. (200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3), 27-41.
- 조혜숙 (2013).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 역할. *생애학회지*, 3(2), 1-19.
- 조 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299-313.
- 최명숙, 한금선 (2008). 고 3 자녀를 둔 한국중년여성의 정서와 삶의 질, 스트레스와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1), 29-37.
- 최영희 (1983). 지지적 간호중재가 가족지지행위와 환자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하춘광, 석희정 (2015). 호주이민 한인 중년여성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63-80.
- 황혜원, 신정미 (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 Aiken, L.,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25-35.
- Beiser, M. N., & Hou, F. (2006). Ethnic identity, resettlement stres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63(1), 137-150.
- Bernice, L. N.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Bernice L. Neugarten, Robert J. Havighurst, Sheldon S. Tobi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5), 471-480.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 Feldman, D. B., & Snyder, C. R. (2005). Hope and the meaningful life: Theoretical and empirical associations between goal-directed thinking and life mean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3), 401-421.
- Henderson, V. W., Guthrie, J. R., Dudley, E. C., Burger, H. G., & Dennerstein, L. (2003). Estrogen exposures and memory at midlife A population-based study of women. *Neurology*, 60(8), 1369-1371.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282-325.
- Maunsell, E., Brisson, J., Mondor, M., Verreault, R., & Deschênes, L. (2001). Stressful life

- events and survival after breast cancer. *Psychosomatic Medicine*, 63(2), 306-315.
- Ro, M. O., & Park, K. R. (2008). The influence of life stresses and coping behavior of the middle-aged working me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2), 255-269.
- Tak, Y. R., & McCubbin, M. (2002).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following the diagnosis of a child's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9(2), 190-198.
- Wrosch, C., Jobin, J., & Scheier, M. F. (2017). Do the emotional benefits of optimism vary across older adulthood? A life spa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85(3), 388-397.
- 1차원고접수 : 2018. 03. 19.
심사통과접수 : 2018. 08. 07.
최종원고접수 : 2018. 08. 30.

Moderate Effect of Spouse Child Support in Relation to Life Stress and Satisfaction of Middle-Aged Housewife having Married Children

Moon Joo Cheong

Hanyang University

Young-Hee Hong

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e effect of support of the child and spouse on life event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 - aged women.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350 married women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 do, and 330 of them were collected. A total of 32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ept for 7 questions including two questionnaires that were unfaithfully answered and five questionnaires of middle - aged full - time housewives with unmarried children becau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middle-aged full-time housewives between 45 and 60 years of age, including one or more married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pousal suppor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 - aged women, except family relationship stress.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child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ole variable moderating the life event stress of all life including economic problems, role relation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presented to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middle - Aged women, Life event stress life satisfaction, Spouse support, Child support